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8>

# 늘 깨어있으면 실수하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바르게 대수행을 한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수행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웃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한다.”  
학승이 물었다.  
“웃을 입거나 밥을 먹는 것은 보통의 일입니다.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한번 말해보라. 내가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問了事底人如何  
師云 正大修行  
學云 未審和尚還修行也無  
師云 著衣喫飯  
學云 著衣喫飯尋常事 未審修行也無  
師云 你且道 我每日作什麼

요사저인(了事底人)은 ‘일을 마친 사람’이라는 뜻이다. 선문에서 일을 마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일상사 무엇을 할까? 여기에 대해 조주 선사는 깨달아야 비로소 바른 대수행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조주 선사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통 선불교는 돈오점수(頓悟漸修)니, 돈오돈수(頓悟頓修)니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월각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던 교가(敎家)의 규봉 스님과 청량 스님이 한 말이다. 선가(禪家)에서는 오로지 돈오(頓悟)만 말한다.

돈오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오래 됐다. 선가에서 돈오의 뜻을 확실하게 표명한 선사는 육조 스님이다. 육조 혜능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돈오를 강조했고, 깨달으면 그 자체가 돈수라 했다 [悟人頓修].

후대에 규봉 스님은 이러한 선문의 돈오의 뜻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를 말하면서 깨달음에 차별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가의 판단일 뿐이다. 돈오돈수라는 말을 하거나 돈오점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규봉의 뜻을 좇는 사람들이다.

정통 선불교는 자성을 깨닫고 바로 부처의 행을 행한다. 이것을 육조 스님은 수행불행(修行佛行)이라고 했다. 이 사상은 뒤에 원오 극근 선사가 오후 보림(悟後 補任)이라는 말로 잘 설명했

다. 즉, 스스로 부처인 것은 분명히 알았으나 그동안 습성이 깊은 이유로 부처의 행이 쉽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깨달음 후에도 부처의 행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때가 보림 기간이다. 즉, 육조 스님이 깨달았으면 불행을 수행하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펼쳐놓고 설명한 것이다.

육조 스님의 선법은 닦아서 부처가 되는 선법이 아니고 깨달아서 부처를 회복하는 선법이다. 육조 스님과 신수 스님의 계승에서도 이러한 차별성은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닦는 것을 강조했던 북쪽 신수계의 선법은 나중에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종 혜능의 돈법만 남아서 오늘날까지 대를 이어온 선불교라는 것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조주 스님도 정통 선불교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깨달고 난 다음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 문답에서도 깨달아야 ‘바른 대수행’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웃을 입거나 밥을 먹을 때 및 일상사에 수행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수행은 물론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師云 老僧若不入 爭得見郎中

이 법(진리)을 아는 사람들은 개구죽착(開口即着)이다. 즉, 뭐라고 입만 병긋하여도 진실과 10만 8000리나 멀어진다. 따라서 선(禪)을 설명하고, 도(道)를 설명한다면서 수많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옥에 갈 겁보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 선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선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에게 불법을 설명해줄 수 있던 말인가? 그래서 불조의 은혜가 한량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잠자지 않는 눈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범안(凡眼)과 육안(肉眼)이다.”  
스님은 또 말하길,  
“비록 천안(天眼)은 얻지 못했지만 육안의 힘은 이와 같다.”

학승이 말했다.  
“무엇이 잠자는 눈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불안(佛眼)과 법안(法眼)이 잠자는 눈이다.”

問 如何是不睡底眼  
師云 凡眼肉眼  
又云 雖未得天眼 肉眼力如是  
學云 如何是睡底眼

師云 佛眼法眼是睡底眼

잠자지 않는 눈은 늘 깨어있는 눈이다. 눈이 깨어있으면 실수하지 않는다. 정신이 온전한테 어찌 실수가 있겠는가. 깨어있는 눈은 보통 불안(佛眼)과 법안(法眼)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반대로 범안(凡眼)과 육안(肉眼)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은 선사는 보이는 것이 다르다.

스님은 부처의 눈은 오히려 잠들어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선악이 없으며, 길흉도 없는데 도대체 피곤하게 눈을 뜨고 살피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불안은 눈을 감고 감아서 이수라장 같은 세상도 아무 문제없는 세상으로 보고 툭툭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범안과 육안은 평범한 눈이지만 사리 분별이 있고,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가운데 또한 옳고 그른 것이 없는 것도 안다. 따라서 수시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것은 아닌지 깊이 살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빠르게 나아가게 한다. 범안과 육안의 능력은 크다.

무불선원 선원장

## 깨달음에는 차별없어 오직 돈오뿐

## 돈오점수, 돈오돈수 구분은 무의미

다. 따라서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수행 계를 갖추어서 부처가 되려고 정진하는 것과는 다른 수행이다. 조주 선사는 일거수 일투족이 그대로 부처의 행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행동 하나, 말 한 마디가 혹은 부처의 행과 말에 들어맞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갔던 선사였다.

남종(南宗) 비술을 하고 있는 최씨(崔氏)가 물었다.  
“훌륭한 선지식도 지옥에 들어갑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맨 앞에 들어간다.”  
최씨가 물었다.  
“대선지식이 되시는 분이 어찌하여 지옥에 들어가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남종(南宗) 그대를 보겠는가?”

崔郎中問 大善知識還入地獄也無  
師云 老僧未上入  
崔云 既是大善知識爲什麼入地獄

# 체험하지 않고는 터득할 수 없다



선어록 해제 28 허당집(虛堂集) 김호귀 교수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허당집>의 허당(虛堂)은 만송행수의 제자인 임천종륜(林泉從倫)이 주석하던 당호(堂號)이다. 텅 비어 있는 집이라는 정도의 뜻에 대해 원나라 원정 원년(1295) 9월에 불교대부 강당례가 <허당집>에 붙인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경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 손발조차 없는 어떤 사람이/ 그림자 없는 숲속에 들어가/  
뿌리가 없는 나무를 베었네/ 원각의 큰 가람을 지으려고/ 개집의 큰 광명을 빌려다가/  
계정해 기동 주춧돌 세우고/ 채상용 대들보 높이 놓았네/ 결립없는 해탈로 문을 삼고/  
법공을 가져다 좌(坐)로 삼았다/ 이에 그것을 허당이라 하네/ 임천 노인 이에 주석하면서/  
색계 선천의 맨 끝자락에서/ 붉은 노을 늘상 바라 보면서/ 그림자 모양을 엮어 낸다네/  
색에 즉하여 마음 밝히지만/ 허공에 의해 허공 설명하고/ 횡설수설 제멋대로 혀 놀림/  
끝끝내 벗어날 수는 없네/ 이에 친절한 도리 도달하여/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라면/  
날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 학달영명(廓達靈明) 한 자 되어야 하네/

곧 제법이 본래 공하다는 뜻의 텅 비어 있는 집 [虛堂]에서 붉은 노을 [丹霞], 곧 단하 자순이 엮여 놓은 송고 100칙을 바탕으로 하여 풀어보았지만 끝내는 그 도리를 체험하지 않고는 터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공안 100칙의 집대성이다. 이 공안은 한꺼번에 다 읽어야 하는 필요도 없고, 순서대로 접해야 할 것도 아니다. 나름대로 자신과 인연이 닿는대로 참구하여 단 하나의 공안만이라도 날날이 투철하여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안은 간화선에서는 화두의 뜻이지만, 목조선에서는 진리의 뜻이다. 때문에 간화선에서는 스승의 경우 제자를 지도하는 수단 내지 도구이면서 동시에 제자의 경우 참구의 수단이다. 그러나 목조선에서는 자신의 깃발을 점검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 공안집으로서 <허당집> 6권은 임천종륜이 평창한 것으로 원나라 원정 원년(1295)에 출간됐다. 본래의 명칭은 <임천종륜노인 평창단하순선사송고 허당집(林泉從倫老人評唱丹霞淨禪師頌古虛堂集)>이다.  
복속 시대의 단하 자순의 송고 100칙에 만들어 학

인을 제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단하어록> 권하에 수록되어 있는 송고에서 100칙을 채용한 것이다. 거기에 임천종륜이 맨 앞에 시중을 붙이고, 단하의 고칙과 송에 각각 착어(著語) 및 평창(評唱)을 붙였다. 단하자순(丹雘子淳: 1064-1117)은 녹문자각과 함께 부용도해의 제자이다. 속성은 가(賈)씨이고 사천성 진주 재동현 출신이다. 27세 때 구족계를 받고 진어모월·진정국문·대홍보 등을 역참했다. 후에 대양산 도해에게 참문하고 그 법을 이었다.

송녕 3년(1104) 남양의 단하산에 주석했다. 이후 당주의 대승산 및 수주 대홍산에서 선종을 진작했다. 정화 7년(1117)에 3월 11일 입적했다. 문하에 진월정려·천동정각·대승이승·대홍경에 등이 뛰어났다. <단하자순선사어록> 2권, <허당집> 3권 등이 널리 유포되었다. 임천종륜(林泉從倫) 중국 조동종 제15세로 그 법맥은 동산양개(807-869)-운거도옹(835-902)-동안도비-동안관지-양산연관-대양경현(943-1027)-투자의청(1032-1083)-부용도해(1043-1118)-녹문자각(?-1117)-정주일변-대명보-왕산체-설암만-만송행수(1166-1246)-임천종륜이다.

임천종륜은 호가 임천(林泉)이고 연경 보은선사에 주석한 만송행수에게 참문을 깨침을 인가받고 사법했다. 만수사에서 출세하고 만송을 이어 보은 선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원나라 세조 9년(1268) 조칙을 받아 입내설법하고 제사(帝師)와 도를 논해 선학의 대요를 발휘했다. 또 종일의 <도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상주(上奏)했다.

세조 18년(1277)에는 연경의 민중사에서 도장(道藏)의 위경이 철저히 소각됐는데 이때 종륜에게 불을 붙이도록 했다. 종륜은 투자의청의 송고 100칙 및 단하자순의 송고 100칙에 대해

## 공안은 순서대로·한번에 읽을 것 아냐

## 간화선-화두·목조선-진리 뜻해

해 각각 수시·착어·평창을 가해 <공곡집> 및 <허당집>을 편찬했다.

<허당집> 100칙에 대해 임천종륜은 단하자순이 붙인 각각의 주제에다가 다음과 같이 48가지 부제를 붙였다. 가풍(家風 5회), 경교(經教 3회), 경선(鏡扇), 골동(骨董), 교로(橋路 3회), 기용(器用), 대기(對機 11회), 대도(大道 2회), 목욕(沐浴), 묘견(貓犬), 문법(問法), 문호(門戶), 법기(法器), 법신(法身 3회), 법속(法屬 2회), 병석(甁錫), 복식(服飾), 불조(佛祖 8회), 비주(飛走 3회), 빈주(賓主), 선정(禪定 2회), 성명(姓名), 성방(省訪 4회), 세시(歲時), 시중(示衆 6회), 심안(心眼 2회), 양식(糧食), 예배(禮拜), 우목(牛鹿 2회), 우설(雨雪), 유산(遊山), 인경(人境 2회), 장림(杖笠), 재죽(齋粥), 전당(殿堂), 제왕(帝王), 조교(租教 4회), 조의(祖意), 주증(舟楫 3회), 진보(眞寶 2회), 진상(眞像), 잠학(參學 2회), 천화(遷化 2회), 탐묘(塔廟), 토사(兔蛇), 해결(解結), 향등(香燈), 화과(花菓 2회)

# 2011년 동산불교대학 38기 신입생 모집



##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28년의 역사와 그 바탕으로 19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냅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자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 불교학과 (2월 개강)

1년차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 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무진정대종사(본대학학정), 정병조교수(동국대), 차처사교수(동방대학원), 김성현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 정영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2년차 교과목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성명론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영수교수(동국대), 힐스님(금강선원총재), 최봉수교수(대원대), 김경준교수(동산대), 모주스님(동국대)

###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 (180명) (토요반·목요일·통신반 각 60명)	·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음식문화학과 (20명)	[불교학과] 2011년 1월 3일~2월 12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개별 통보)	[불교학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일반) (통신반)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량이 어려운 분

### ▶ 개강 일시

불교학과 : 2011년 2월 12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대학) 개강  
불교한문학과 3월10일(목), 불교다도학과 3월8일(화), 불교미술학과 3월10일(목)  
사찰음식문화학과 3월9일(수) 개강

### ▶ 원서문의·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별전사항: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 출강 및 통신

### 2011학년도 제 20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20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공시 행정상 보호반도록 지원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